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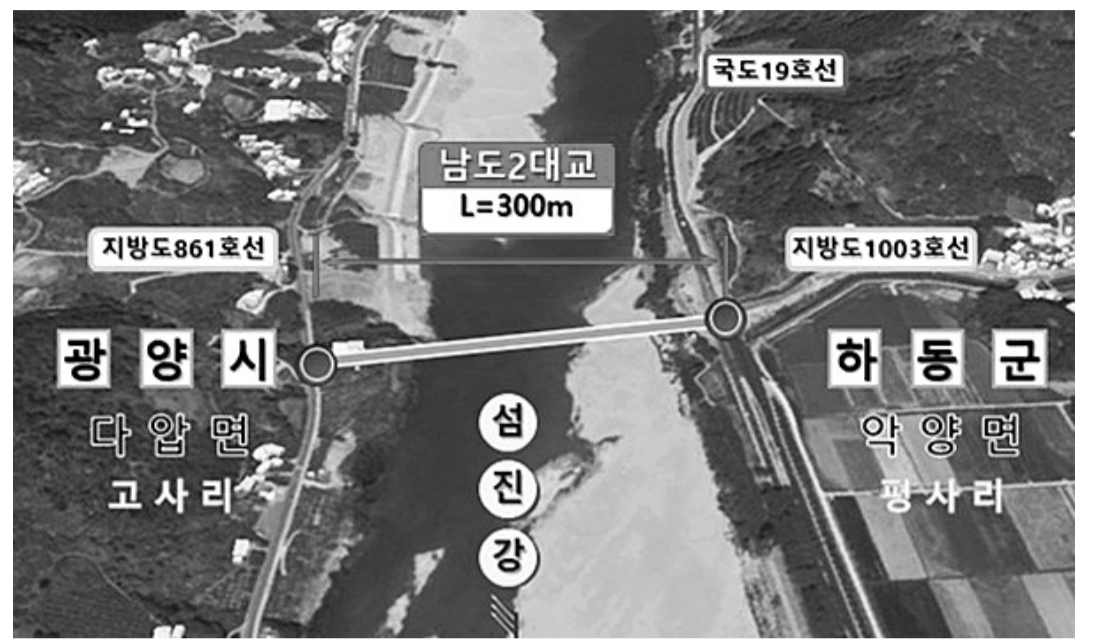
광양~하동 잇는 남도2대교 건설 순항... 주민과 소통

광양시, 주민설명회 갖고 의견 수렴...연내 설계·내년 착공 방침
홍수 등 환경 피해 최소화 대책·경관 조명, 공원 설치 등 의견 교환

광양시와 하동군을 잇는 '남도2대교 건설사업'이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5일 다압면사무소에서 남도2대교(위치도)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계획영역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갖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2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의 동서 통합지대조성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도2대교는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지방도 861호선'과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국도 19호선'을 연결하는 교량사업으로, 섬진강을 가로지르게 된다. 대교 위치는 기존 섬진교에서 남도대교 구간 20km 중 14km 지점이다. 행정안전부·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에 따라 교량 길이 300m, 교량 폭 13.5m, 왕복 2차선으로 설계 중이다. 사업은 올해 설계 완료하고, 내년엔 착공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다압면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홍수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남도2대교가 향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경관조명 설치와 공원 조성 등 교량 주변을 관광 자원화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남도2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98억원 규모이며,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 소요된다.

전라남도·경상남도·광양시·하동군 4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이번 사업의 지방비(99억원) 확보를 위해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각각 7.5%(14억8500만원)씩 총 15%(29억7000만원), 광양시와 하동군은 각각 17.5%(34억6500만원)씩 총 35%(69억3000만원)를 부담하게 된다. 남도2대교가 건설되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원활한 지역 교류와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낙균 광양시 도로과장은 "양 지역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 남도2대교는 광양-하동·구례의 각 종 축제 등 기간 중 상습적으로 정체되던 구간의 통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전국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도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해 年 11억 절감

유수율 95%...목표 10.1% 초과
101만t 누수 줄여...확대 시행

보성군이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공급량 대비 연간 101만t을 절감 11억원의 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냈다. 보성군은 최근 개최한 한국상수도협회(이하 협회) 주관 '보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 판정 심의회' 심의 결과 유수율 95.1%로 애초 목표 유수율(85%)보다 10.1%를 초과 달성한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9년부터 5년간 국고를 포함한 2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

규모 국책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2019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별도급 급수 구역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관련 사업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유수율 성과보증을 완료하고, 이번 심의를 통해 협회

로부터 최종 사업 성과에 대한 판정을 받았다. 보성군은 노후상수도 관로 32.9km를 교체하고 블록·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누수탐사와 복구 등을 통해 사업 시작 전 41.7%였던 유수율을 95.1%로 끌어올려 연간 101만t의 누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를 누수물 직접 생산비용으로 환산하면 매년 11억원여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현대화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토대로 다른 지역에도 확대 시행해 보성군 전체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절감된 예산을 상수도시설 확충·개선 사업에 재투자해 깨끗한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 '수돗물 안심확인제' 연중 시행

pH 등 6개 항목 검사...수질 검사원 현장 방문 무료 서비스

광양시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돗물 수질 확인을 희망하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질 검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무료 서비스다. 신청자는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상세한 검사 결과를 받게 된다. 검사 항목은 pH(산-알칼리의 지표), 탁도(물이 흐려진 정도), 잔류염

소(소독의 정도), 철과 구리, 아연(수도관 재료 성분의 용출 여부) 등 총 6개 항목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70여 곳을 대상으로 '수돗물 안심확인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용석 광양시 상수도과장은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다"며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사랑상품권 9월까지 10% 특별 할인

소상공인 매출 회복 지원·가계 부담 완화

순천시가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순천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 할인 판매는 고급리 장기회와 임대료 상승 등에 따른 비용 부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승하는 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순천시는 2018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 판매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77억원의 상품권이 판매됐다. 순천시는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경제 시책을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유관 기관·단체장, 청년창업가, 여성기업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 경제 상생협의회를 8월 1일에 발족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할인 판매가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명절을 맞이하는 시민들에게는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고 지역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순천사랑상품권이 시민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 웹드라마 '하멜', 이탈리아 '베스트 웹시리즈상'

시간여행 소재·관광자원 활용
심사인단 바다 등 영상미 호평
국내외 어워즈 9년 연속 수상

여수시가 자체 제작한 아홉 번째 홍보 웹드라마 '하멜'이 뉴욕에서 열린 이탈리아 오니로스 필름 어워즈에서 '베스트 웹시리즈상'을 수상했다. 여수시는 2016년 제작한 웹드라마 '신지개의 사랑이야기'부터 '하멜'까지 각종 국내외 어워즈에서 9년 연속 수상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웹드라마 '하멜'은 네덜란드인 하멜의 표류기를 기반으로 여행 작가인 MZ세대 주인공이 조선시대와 현실을 오가며 여수에 표류한 하멜의 탈출을 도와주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다.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줄거리와 여수시 곳곳에 숨은 관광자원을 활용한 점, 바다와 자연의 빼어난 영상미로 심사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 웹드라마 '하멜', 이탈리아 '베스트 웹시리즈상' 수상 이탈리아 오니로스 필름 어워즈는 매달 수상작을 발표하고, 수상 작품 일부를 3개월마다 뉴욕에서 상영하고 있다.



정기명 시장과 관광과 직원들이 25일 '하멜'의 오니로스필름 어워즈 '베스트 웹시리즈상' 수상을 기념하고 있다. 여수시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제1회 여수 국제 웹페스트'를 개최한다. 해외 76개국 947개와 국내 359개의 출판작이 접수됐다. 시는 이 가운데 40여 편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공연·상연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여수시=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곡성 청년에 문화복지카드

곡성군이 청년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2024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2022년 8월 1일 이전부터 전남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96년~2005년도 출생 청년에게 문화복지활동비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농협카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곡성군은 9월까지 대상자 적적여부 확인 후 10월 중 문화복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용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문화복지카드는 전남 도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도서 구입, 체육시설, 학원 수강, 공연 관람, 숙박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양경제청, 입주 업체 경영 실태조사

9월13일까지 732곳 대상 69개 항목...12월 결과 발표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작년 기준 고용 규모 5인 이상 사업체 및 1인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경제청은 이 기업들에 대해 고용 현황, 매출·매입, 생산 현황 등 6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다. 조사원이 입조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표본과 면담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기업식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며, 광

양경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말 기준 광양경제청구역 내 입조사업체 실태 조사 결과 주요 지표인 입조사업체 수는 712개로 2021년 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 인원은 2만2275명으로 14.4% 증가, 매출액은 14조5000억원으로 61.6% 증가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덕 광양경제청 투자기획부장은 "경제구역 내 입조사업체의 적극적인 조사 협조와 응답을 부탁드리며, 조사 결과는 행정 지원 정책 추진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 청년 전세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18세~45세 청년·신혼부부 대상...8월5~16일 신청 접수

여수시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여수시 거주 중 또는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고, 신혼 부부는 부부합산 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모집 기간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이며, 여수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여수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주거비를 경감시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2028년까지 '청년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여 청년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kwangju.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컨' 부두 하역장비 공동사용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이하 공사)는 한국국제터미널,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주)과 '컨' 부두 하역장비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신협을 통해 한국국제터미널과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은 각 사의 핵심 하역장비의 공동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고, 공사는 하역장비 공동사용을 지원해 광양항 경쟁력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세계적인 선박의 대형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하역장비 공동사용을 통해 광양항 컨'터미널 운영사와 힘을 모으고 상생하는 여수광양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